

## 1. 온 양 군

동쪽으로는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22리이요, 남쪽으로는 예산현(禮山縣) 경계까지 26리이며, 서쪽으로는 신창현(新昌縣) 경계까지 13리이며, 북쪽으로는 아산현(牙山縣) 경계까지 13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51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탕정군(湯井郡)이었는데, 신라 문무왕(文武王)때에, 주(州)로 승격시켜 총관(摠管)을 두었다가, 뒤에 주를 폐하고 군으로 하였고, 고려 초기에는 온수군(溫水郡)으로 고쳤으며, 현종(縣宗) 9년에 천안부(天安府)로 붙였고, 명종(明宗) 2년에는 감무(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14년에 신창(新昌)과 병합하여 온창(溫昌)이라 칭호를 고쳤더니, 16년에 이를 다시 쪼개여 온수현(溫水縣)을 설치하였는데, 세종 24년에 임금이 온천에 거동하여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군으로 승격시켰다.

[관원] 군수·훈도 : 각 1명

[군면] 탕정(湯井)·온수(溫水)·온창(溫昌)·온천(溫泉)

[성씨] 본군 정(鄭)·이(李)·방(方)·강(康)·윤(尹) : 촌에 있다.

[산천] 연산(燕山) : 읍 북쪽 2리 지점에 있는 이 고을 진산(鎭山)이다. 배방산(排方山) : 읍 동쪽 8리 지점에 있는데, 산마루에 네 개의 봉우리가 똑같이 대치하고 있어 가장 기관(奇觀)을 이루고 있는데, 이를 속칭 과안봉(過雁峰)이라 한다. 서달산(西達山) : 읍 남쪽 3리 지점에 있다. 송악산(松岳山) : 읍 남쪽 23리 지점에 있다. 화산(華山) : 읍 남쪽 11리 지점에 있다. 거차라산(巨次羅山)·월라산(月羅山) : 모두 읍 서쪽 7리 지점에 있다. 광덕산(廣德山) : 읍 서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가문현(佳文峴) : 읍 남쪽 30리 지점에 있다. 포천(布川) : 읍 동쪽 7리 지점에 있다. 물근원이 천안군 풍세동(豐世洞)에서 나와 신창현의 견포(犬浦)로 흘러 들어간다. 가리천(加里川) : 읍 동북쪽 1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셋이 있으니, 하나는 읍 서쪽 전족령(全足嶺)에서 나오고, 하나는 가문현에서 나오며, 다른 하나는 읍 동쪽 잉읍현(仍邑縣)에서 나오는데, 신창현의 견포로 흘러 들어간다. 온천(溫泉) : 읍 서쪽 7리 지점에 있다. 질병 치료에 효험이 있어 우리 태조·세종·세조가 일찌기 이곳에 거동하여 머무르면서 목욕하였는데, 유숙한 어실(御室)이 있다. 신정(神井) : 임원준(任元濬)의 기(記)에, "천순(天順) 8년 봄 2월에 우리 주상(主上) 승천체도 열문영무 전하(承天體道烈文英武殿下)께서 남쪽으로 총청도를 순수(巡狩)하시면서 속리산(俗離山) 복천사(福泉寺)에 거동하시어 혜각존자(慧覺尊者)를 만나 보시고, 그 뒤 3월 초 1일에 온양군의 온탕(溫湯)에 거가를 머무르셨다. 그러한 지 4일 만에 신천(神泉)이 홀연 솟아올라 뜰에 가득히 흘러 찼다. 성상께서 크게 기이하게 여기시고 명하여, '그곳을 파니, 물이 철철 넘쳐나오는데 그 차기는 눈과 같고, 그 맑기는 거울같았으며, 맛은 달고도 짜릿하였고, 성질이 부드럽고도 고았다. 명하여 수종한 재상들에게 반포해 보이시니, 서로 돌아보며 놀라고 기뻐하지 않은 자가 없었고, 또 서로 이르기를, '옛날에 없던 것이 지금 새로 생기어 탕정(湯井)의 물은 따뜻하고 이 우물은 차니, 이는 실로 상서의 발로이다.'하여, 8도에서 표문(表)을 올려 하례 칭송하니, 드디어 주필 신정(駐 神井)이란 이름을 내렸다." 하였다.

[토산] 옷칠(漆)·대추(棗)·감(柿)·복령(茯 )

[성곽] 배방산성(排方山城) : 돌로 쌓은 성으로 주위가 3천 3백 13척에, 높이는 13척이며, 그 안에 우물 두 개가 있고, 군창(軍倉)이 있다.

[누정] 대청루(大靑樓) : 객관 동쪽에 있다. 군수 최린(崔潑)이 중건한 것이다. 이숙함(李淑喊)이 빙설루(氷雪樓)라 이름을 고치고 지은 기문이었다.

[학교] 향교 : 읍 서쪽 1리 지점에 있다.

[역원] 시흥역(時興驛) : 옛날에는 이흥역(理興驛)이라 호칭하였는데, 읍남쪽 8리 지점에 있으며, 승(丞)이 있다. 본도에 속역(屬驛)이 일곱 개가 있으니 창덕(昌德)·일흥(日興)·급천(汲泉)·순성(順城)·흥세(興世)·장시(長時)·화천(花川)이다. ○승(丞) 1명이 있다. 애원(艾院) : 읍 동쪽 18리 지점에 있다. 신원(新院) : 읍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혹은 태산원(泰山院)이라고도 일컫는다. 망빈원(望賓院) : 읍 동쪽 13리 지점에 있다. 용두원(龍頭院) : 읍 남쪽 24리 지점에 있다. 송현원(松峴院) : 읍 동쪽 7리 지점에 있다. 오산원(烏山院) : 읍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임반원(任潘院) : 읍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불우] 과안사(過 寺)·기린사(麒麟寺)·남산사(南山寺) : 모두 서달산에 있다. 목사(木寺) : 배방산에 있다. 외암( 庵)·현우사(玄雨寺), 중암(中菴) : 모두 화산(華山)에 있다. 석암사(石

菴寺) : 송악산(松岳山)에 있다.

[사묘] 사직단 : 읍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연산(燕山)에 있다. ○고려 고종(高宗) 23년에 몽고(蒙古)의 군사가 와서 성읍을 포위하였는데, 아전 현여(玄呂)등이 성문을 열고 나가 싸워 크게 격파하고, 적의 머리 2급(級)을 베었고, 화살과 돌에 맞아 죽은 자가 2백여 명이나 되었으며, 노획한 군기도 매우 많았다. 왕이 성황신이 음으로 도운 공이 있었다 하여 신호(神號)를 더 봉하였다. 여단 : 읍 북쪽에 있다.

[고적] 남산(南山) : 고려 태조(太祖)가 유검필(庾黔彌)에게 명하여 양정군(陽井郡)에 성을 쌓았다. 이때 후백제의 장수 김훤(金萱)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청주(靑州)를 침공하였다. 하루는 검필이 본군의 남산에 올라 앉아서 졸고 있었는데, 꿈에 한 거대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일 서원(西原)에 반드시 변란이 있을 것이니, 마땅히 속히 가서 구원해야 할 것이다."하였다. 검필이 놀라 깨어 청주로 달려가서 <후백제의 군사와> 더불어 싸워 격퇴하고, 독기령(禿岐嶺)까지 추격하여 죽이고 포로한 것이 3백여 명이나 되었다. 개흥부곡(開興部曲) : 읍 서쪽 14리 지점에 있다. 상곡부곡(上谷部曲) : 읍 남쪽 13리 지점에 있다. 목천부곡(木村部曲) : 읍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박산부곡(朴山部曲) : 읍 남쪽 12리 지점에 있다. 독촌부곡(禿村部曲) : 읍 북쪽 10리 지점에 있다. 묘산부곡(卯山部曲) : 읍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명한 고려] 이성(李晟) : 충렬왕(忠烈王)때에 과거에 올라 감무(監務)에 뽑혀 임명되었다.

[효자 본조] 맹희도(孟希道) : 효행이 있어 정문을 세워 표창받았다. 신창현(新昌縣) 인물 조항에 자세히 나와 있다.

[제영] 필불영천용(佛靈泉湧) : 이승손(李承孫)의 시에, "괄괄 영천이 솟아나는 것은, 활활 타는 화덕(火德)이 통함이다."고 하였다. 교전상운합(郊殿祥雲合) : 이숙치(李叔)의 시에, "들 밖의 궁전엔 상서로운 구름이 모여 가득하고, 신령한 샘에는 따뜻한 옥류(玉溜)가 맑구나."하였다. 행궁비수령(行宮非繡嶺) : 이맹상(李孟常)의 시에, "이 행궁이 수령궁이 아니거니, 대가(大駕) 임행하신 곳 어찌 저 곤명(昆明) 땅이라."하였다. 봉강토덕형(封疆土德亨) : 박원형(朴元亨)의 시에, 읍호(邑號)를 올리니 천은(天恩)이 무겁고, 계역을 바로하니 토덕이 형통하는도다." 하였다. 팔영(八詠) : 이숙함(李淑咸)의 시와 및 그 서문(序)에, "내가 산수(山), 영숙(永叔)과 같이 온천행궁(溫泉行宮)의 직려(直廬)에 입직하고 있으면서 때로 서하(西河)·고양(高陽)·연양(彦陽)등 여러 상공(相公)과 더불어 왕복 수창(酬唱)하며 스스로 그 회포를 풀고 지냈는데, 영숙이 그 사이에 팔경(八景)의 제목을 얻어, 나에게 먼저 고체시(古體詩)를 지으라 요구하여, 장차 화교(和教)의 장본으로 삼으려 하니, 그야말로 키질 해 까부르면 쪽정이와 겨가먼저 나가는 법이다. 이를 보는 자 그 나의 광참(狂僭)함을 용서하라."하였다. 행궁의 상서로운 구름(行殿祥雲) : "봄바람에 어가(御駕)가 호서(湖西)에 거동하사, 온천 이곳에 깊숙히 어연(御輦)을 머무르셨네. 궁전 위에 애애(靄靄)하게 떠오르는 구름 송이, 상서의 광채가 흩어졌다 가는 다시 모아든다. 북녘으로 아득하게 봉래궁(蓬萊宮)과 연하여, 성주(聖主)의 효성어린 생각 바라보는 가운데에 있네. 저 구름은 무정한 듯하면서도 도리어 유정한 것이런가. 하물며 다시 비를 주어 전공(田功)을 도움에랴."하였다. ○임원준(任元濟)의 시에, "바위 위의 꽃과 시냇가의 버들이 연(輦)길에 비치니, 온천 한 지역에 봄이 길이 머물렀네. 봉가(鳳駕)때로 구천(九天)으로 쫓아내려 오시니, 아름답고 이상스런 상서가 모두 함께 모아들었서라. 상서구름 옥옥(郁郁)하게 행궁을 뒤덮으니, 현란(絢爛)한 5색 광채 공중에 떠있어라. 저 구름 흩어졌다 다시 모여 천지와 사방에 은택증을 알었노니, 만물이 힘입어 사는 공을 우러러 바라노라."하였다. 영천(靈泉)의 서액(瑞液) : 이숙함의 시에, "화룡(火龍)이 길이 땅밑에 굴을 파서, 샘 길을 열어 놓아 맑은 물 솟아나니, 따뜻한 물 신령한 진액이 사람의 질병을 꽤히 다스려, 해묵은 난치(難治)의 병이 저절로 떠난단다. 세 전하(三殿)옥탕에 하림하사 옥체의 피로 풀어 흠으실 제, 윤활하고 부드러운 악물 마음껏 끼언즈시니, 떠오르는 저 물김은 연기가 아니다. 한 번 씻고 나시면 성수(聖壽) 계산하는 수가 치(壽) 더 첨가했노라고, 서왕모(西王母)가 보낸 글을 푸른 새(靑鳥)가 전해 온다네."하였다. ○임원준(任元濟)의 시에, "따뜻하기 끓인 물갈고 맑기도 한없으니, 불덩이 땅속에 묻혀 때로 물이 솟는다네. 고질(痼疾) 낫게 하여 만 백성을 구제할 뿐 아니라 능히 번뇌(煩惱)도 씻어버려 성체(聖體)도 조호하니, 구름같이 피어오르고 옥 같은 것 피부어서 풀고 흩어버리시니, 화기도 애애(靄靄)하여 상서 연기인듯 하였어라. 남기신 윤택 나누어서 전답에 물을 대면, 여러 해 풍년든 칭송을 서로 전해 들으리라."하였다. 천주(天廚)의 어선(御膳) 반사(頒賜) : 이숙함의 시에, "행궁(行宮) 궁안에 우리님 주포(廚)에는, 바다진미 가득하고 들나물도 가지가지, 날마다 호종한 신료(臣僚)들에게 반포해 내리시니, 팔진(八珍) 낙역부절(絡繹

不絶) 중사(中使)의 발걸음도 수고롭다. 또 다시 궁중 향아리의 우로향(雨露香)을 내리시며, 십분(十分) 취하라는 권고까지 있어 취광(醉狂)이 되어서는, 다 같이 이르기를 이 홍은(鴻恩) 값을 길었으니, 다만 축원하건대 저 능강(陵岡)같이 오래오래 수하소서."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타봉(駝峰, 낙타등에 산봉우리 같이 솟은 살덩이. 진이로 일컫는다) 웅장(熊掌)이 천주(天廚)에 가득하니, 심상한 고기와 소채 어찌 이에 비하랴. 은총 입어 나날이 팔진 진미 내리시니, 감격도 하지만은 도리어 분촌(分寸)의 공 없음이 부끄럽다. 하물며 궁에서 빛은 술, 님의 향기 띠었는데, 금 술잔에 가득 부으니 이 기쁨 미칠 것만 같구나. 어가 호위하고 돌아갈 기일이 멀지 않건만, 쌍궐(雙闕)을 바라보고자 높은 봉에 올라 본다. 신정(神井)에 새긴 빗돌 : 이숙함의 시에, "세조 당년에 이곳에 임행하니, 행전(行殿) 뜰 한가운데 신정(神井)이 솟아났다. 호종했던 신하의 그 재에 진정 당대 제일이라, 성덕 칭송한 웅건(雄健)한 그 문사(文詞)를 한 붓으로 휘둘렀다네. 돌에 새긴 그 글자가 이에 벌써 깎이우고 떨어져 나갔으니, 20년의 광음이 한 순간임에 놀랐노라. 자성(慈聖)께서 이를 측은히 생각하시고 중건하라 명하시니, 뒷날에 흘러 전하는 건 다시 태사(太史)의 붓대에 빙의(憑依)하리로다."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살아서 성조(聖祖)를 뵈온 것은 진실로 만행한 일, 호종했던 그 당시에 이 온정(溫井)에 왔었노라. 찬 샘물 홀연히 두 온탕 사이에 솟아올라, 신에게 기록하라 명하시어 거치른 문구 붓을 달렸었네. 20년이 채 안되어 글자 이미 상하였고, 때 옮기고 세사도 변개되니 일순(一瞬) 인생에 함께 놀랐노라. 반짝반짝 한 치의 적은 마음 다 시 챙겨 눈물 뿌리면서 돌 다듬어 거둬 필적 실었노라." 하였다. 광덕산(廣德山)의 아침 아지랭이 : 이숙함의 시에, "남녘을 바라보니 광덕산이 드높이 비겼는데, 저멀리 새들만이 중천으로 지나는구나. 아침마다 저 아지랭이 뜻이 있어 뜨는 것인가. 가늘고 가는 흰 김(紈)같기도 하고 다시 비단(綺羅)같기도 하다. 저 아름다운 산속에 삼라(森羅)한 만상(萬象)을 쥘신 신고 가서 유상(遊賞)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구나. 어찌하면 화공(畫工)의 손을 빌려 한 폭의 산수도를 그려서, 그대의 고당(高堂) 흰 벽위에 걸어줄가."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첩첩이 반공(半空)에 가로질린 산봉우리 천길이나 높아서, 원숭이도 오르기 어렵고 기러기도 넘기 어려운데, 다만 가벼운 아지랭이 절정(絶頂)을 살짝 덮어, 아침이 오면 분연(紛然)한 풍경 만상이 삼라하다. 그 누가 무상(無像)한 것을 유상(有像)하게 하시고. 볼수록 그의 변태(變態) 그윽히 감상하기에 족하다. 어찌하면 저 연하(烟霞)속에 사는 승려를 불러서, 함께 지팡이 이끌고 깊숙히 푸른 절벽 위를 탐색해 볼까. 공관(貢串)의 봄조수(春潮) : 이숙함의 시에, "호서(湖西)의 큰 바다 물결 어찌 그리 도도(滔滔)한가, 해추(海)가 봄 조수 보내오니 찬 물결이 일어난다. 남쪽나라 조운(漕運) 배는 많기도 하다. 구름 돛대 만 길이 하늘과 함께 높았어라. 해류(海流) 평온하게 하라고 풍백(風伯)을 단속하고, 밤낮을 계교 않고서 용산강(龍山江) 머리로 향해 간다. 만억(萬億) 자( )를 수송하여 국고를 높이니 우리의 세상 형편도 이미 서주(西周)와 같음을 깨달았노라."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긴 강물 밤낮으로 도도하게 흘러, 천리 길, 만리 길을 넓은 파도속 달려간다. 뇌성을 울리며 눈더미를 몰아치는 듯, 기세 어이 그리 장하냐. 평상시에도 놀란 파랑(波浪)이 하늘과 연하여 출렁댄다네. 호서의 이곳은 물결이 평온타고 불리우는 곳, 남방의 부세를 이곳에서 조운해 간다. 그대는 듣지 못하였나, 하늘엔 바람없고 바다에 물결이 일지 않는다는 것, 성덕(聖德)의 감화가 어찌 홀로 서주(西周)만이 장하리" 하였다. 송령(松嶺)의 찬 물결 : 이숙함의 시에, "온정(溫井) 서쪽 머리에 자그마한 고개, 영성하게 벌여선 소나무들이 구름위를 쓸고 있다. 큰 바람 세차게 불면 푸른 물결이 놀란듯 일어나고, 그늘진 골짜기에서 음향이 생겨나면 나무가지들이 맑은 소리내어 운다. 선계(仙界)의 학(鶴)이 여기 와서 깃들고 있어 냉냉한 그 울음소리 밤마다 낮은 가지서 난다네. 내 한번 그 소리 타고가서 진인(真人)을 찾으려나. 상계(上界, 천계(天界)의 관부(官府) 길이 설치 않으리라."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사방에 산이 싸고 둘러 동문(洞門)은 작는데, 고개 위에 멀리 서 있는 소나무의 모습 정정(亭亭)도 하다. 서늘한 밤 자연의 음향이란 싫지 않은 법, 10리 밖의 파도소리가 나무가지에 울린다. 가늘게 흔들리는 섬세한 잎새는 검푸른 구름이 깃들어 있는 듯, 가볍게 흔들는 버성긴 가지에는 차가운 달이 낮으막이 걸려 있고, 이내 바람자고 풍운(風韻)이 처음으로 고요해 질 양이면, 흥금도 쌀랑해져 시몽(詩夢)이 희미하다." 하였다. 보리 밭 두둑의 이삭 물결 : 이숙함의 시에, "꽃은 자고 버들도 줄어 봄이 한창인데, 일도 없는 저 포곡새(布穀, 뚝새)는 농사에 힘쓰라고 '뚝뚝 뚝뚝, 울어댄다. 가을 보리 구름같이 연하여 이삭 물결 일드니, 단비내려 하룻밤에 푸른 꺼력이 늘어졌다. 절기 흘러 자리 자리 가을이 또 왔는데, 농부들 먹을 일 생각하고 기쁨이 먼저 가슴에 뿔 것이라. 천만 개의 마을마다 조석 연기 일어나니, 태평스런 민간 풍경 춘대(春臺)에 올라 보는 듯 하다." 하였다. ○임원준의 시에, "밭보리 푸르고 푸러 생의에 차 있는데, 평지와 산간에 부지런히 지은것을 농부들은 함께 기뻐한다. 무성한 이삭들(한 대에)

두 이삭씩 달렸으니, 높고 낮은 푸른 물결이 몇겹이나 되던가. 일진(一陳) 화풍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만경(萬傾)의 누른 구름이 가을을 재촉하네. 우리에게 풍년짐이 이로부터 시작하리니, 햇무리만으로 어찌 노대(魯臺)를 점치랴."하였다.

◎ 비 고

[방면] 읍내(邑內) : 끝이 5리. 동면(東面) : 처음은 5리, 끝이 20리, 서면(西面) : 끝이 10리, 남군내(南郡內) : 처음은 5리 끝은 10리, 남상(南上) : 처음은 15리, 끝은 20리, 남하(南下) : 처음이 5리, 끝은 15리, 일북(一北) : 동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이북(二北) : 처음은 5리, 끝은 10리

[성지] 배방산성(排方山城) : 배방산에 있으며 3천 5백 13척, 우물이 둘.

[궁실] 온천행궁 : 온천에 있으며 여러 임금이 머물고 갔던 곳이다.

2. 아 산 현

동쪽으로는 천안군(天安郡) 경계까지 40리이며, 남쪽으로는 신창현(新昌縣) 경계까지 16리이요, 온양군(溫陽郡) 경계까지 18리이며, 서쪽으로는 음천군(陰川郡) 경계까지 32리이며, 북쪽으로는 평택현(平澤縣) 경계까지 42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24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아술현(牙述縣)이었는데, 신라 때에는 음봉(陰峯) : 음잠(陰岑)이라 고도 했다. 이라 고쳐 당정군(湯井郡)의 속현으로 만들었고, 고려 초기에는 인주(仁州)로 고쳤으며, 성종(成宗) 14년에 자사(刺史)를 두었더니, 목종(穆宗) 8년에 다시 이를 폐하였고, 현종(顯宗) 9년에 천안부(天安府)로 불었다가 뒤에 아주(牙州)로 고쳐 감무(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종 13년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다른 예에 따라 현감으로 하였는데, 세조 5년에 현을 줄여서 온양·평택·신창등 세 고을에 나누어 불었다가 11년에 복구하였다.

[관원] 현감과 훈도 : 각 1명

[신증] 연산군(燕山君) 을축년에 경기땅으로 이속시켰던 것을 금상 전하(今上殿下, 중종) 초년에 환원되었다.

[군명] 아술(牙述)·음봉(陰峯)·음잠(陰岑)·인주(仁州)·영인(寧仁)·아주(牙州)

[성씨] 본현 이(李)·강(康)·백(白)·전(全)·유(兪)·신(申)·현(玄)씨가 있고 장(蔣)·신(申)·이(李)·

강(康)·현(玄)·유(兪)·윤(尹) : 모두 촌에 있다. 임(林) : 본적은 개경(開京). 덕천(德泉) 유(兪)·이(李)·안(安)·강(康)

[형승] 수많은 산봉우리가 교착(交錯)하여 대치해 섰고, 두 시냇물이 돌아 흐른다 : 정이오(鄭以諤)의 여민루(廬民樓) 기문에 있다.

[산천] 신성산(薪城山) : 본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다. 동림산(桐林山) : 본현 남쪽 7리 지점에 있다. 고용산(高勇山) : 본현 북쪽 12리 지점에 있다. 동심산(東深山) : 본현 동쪽 5리 지점에 있다. 연암산(巖山) : 본현 동쪽 29리 지점에 있다. 입암산(笠巖山) : 본현 서쪽 12리 지점에 있다. 바다 : 본현 서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창정지(倉正池) : 본현 북쪽 11리 지점에 있다. 장자지(長者池) : 본현 남쪽 18리 지점에 있다. 대내산진(大山津) : 본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경기 안성군(安城郡)에서 나와 못 지류를 받아들여 이 나루가 되었다. 개포진(介浦津) : 본현 서쪽 13리 지점에 있다. 시진(市津) : 본현 북쪽 26리 지점에 있다. 당포(堂浦) : 본현 북쪽 16리 지점에 있다. 봉화천(烽火川) : 본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전의현(全義縣)에서 나와 견포(犬浦)로 흘러 들어간다.

[토산] 백옥(白玉) : 소암리(所岩里)에서 난다. 옥돌(玉石) : 고현(羔峴)에서 난다. 수정(水晶) : 불장원리(佛藏院里)에서 난다. 황소어(黃小魚)·세미어(細尾魚)·조기(石首魚)·웅어(葷魚)·뱅어(白魚)·새우(鰕)·백화사(白華蛇)·송어(秀魚)

[봉수] 연암산 봉수(岩山烽燧) : 남쪽으로는 천안군(天安郡)의 대학산(大鶴山)과 호응하고, 북쪽으로는 직산현(稷山縣)의 망해산(望海山)과 호응한다.

[학교] 향교 : 본현 동쪽 2리 지점에 있다.

[역원] 장시역(長時驛) : 본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불장원(佛藏院) : 본현 남쪽 6리 지점에 있다. 요로원(要路院) : 본현 동쪽 22리 지점에 있다. 흥인원(興仁院) : 본현 북쪽 5리 지점에 있다.

[창고] 공세관창(貢稅串倉) : 본현 서쪽 10리 지점에 있다. 본현 및 서산(瑞山)·한산(韓山)·연산(連山)·임천(林川)·정산(定山)·공주(公州)·홍주(洪州)·신창(新昌)·결성(結城)·보령(保寧)·전의(全義)·청양(靑陽)·이산(尼山)·대흥(大興)·석성(石城)·해미(海美)·태안(泰安)·천안(天安)·비인(庇仁)·은진(恩津)·목천(木川)·면천(沔川)·연기(燕岐)·덕산(德山)·서천(舒川)·직산(稷山)·홍산(鴻山)·부여(扶餘)·남포(藍浦)·예산(禮山)·당진(唐津)·평택(平澤)·온양(溫陽)·청주(淸州)·문의(文義)·회덕(懷德)·진장(鎭岑)·옥천(沃川)·회인(懷仁)등 여러 고을의 세곡을 이곳에 수납하였다가 조운(漕運)하여 서울로 가니, 수로의 거리가 무릇 5백리이다.

[신증] 옛날에는 창고가 없었는데, 가정(嘉靖) 계미년에 비로소 집을 지으니 무릇 80칸이었다.

[불우] 동림사(桐林寺)·산심사(神心寺)·축봉사(縮鳳寺)·보림사(寶林寺)·현암사(懸巖寺) : 모두 동림산에 있다. 동심사(桐深寺)·등암사(燈巖寺)·개현사(開現寺)·용화사(龍華寺) : 모두 연암산에 있다. 관서사(觀西寺)·고정사(高井寺) : 모두 고용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 본현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본현 동남쪽 5리 지점에 있다. 여단 : 본현 북쪽에 있다.

[고적] 황촌부곡(黃村部曲) : 본현 북쪽 15리 지점에 있다. 덕천향(德泉鄉) : 본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불암(佛巖) : 동림산 동북쪽 기슭에 있으니, 본현과의 거리는 5리이다. 그 바위가 산봉우리 위에 널려 있는 것이 거의 수리(數里)나 되는데, 가장 큰 것의 형상이 부처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름한 것이다. 속설에 이르기를, "이 바위로 인하여 수령은 어리석은 미치광이가 되고, 향리(鄉吏)들은 모두 흉악하고 간사하다."는 것이다. 세조(世祖)때에, 관찰사 황효원(黃孝源)이 대신(大臣)의 뜻을 받아 조정에 아뢰어 현(縣)을 감성(省)시키고 그 땅을 세개로 구분하여 온양·평택·신창에 붙이고는 그 관사(館舍)와 관전(官田)을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었다. 본읍 사람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구(金鉤), 전 청산현감(前淸山縣監) 조규(趙圭) 등의 상언(上言)을 여러 해를 두고 윤택하지 않았는데, 성화(成化) 을유년에 세조가 온양에 거동하며, 조규 등이 다시 거듭 호소하므로 거가를 따라갔던 종친과 재상 등에게 명하여 현지에 가서 상황을 심찰하고, 드디어 다시 현을 두었다. 어떤 사람이 일찌기 그 바위에 글을 쓰기를, "괴석(怪石)이 신기한 부처를 이루어, 3년 동안에 다섯 원을 갈려 보냈다네. 강 바람이 부끄럼이 있다면, 눈을 몰아쳐 산의 얼굴을 가리우리라." 하였다. 여민루(民樓) : 객관 북쪽에 있다. ○정이오(鄭以諤)의 기문(記文)에, "영락(永樂) 을미년 여름에 지승문원사(知承文院事) 유현(兪顯)군이 아산지도(牙山地圖)를 받들고 와서

호정공(浩亭公 하륜(河崙))을 뵈고 말하기를, '아산은 현(顯)의 외가 고장입니다. 지금의 현감 최후(崔侯) 안정(安正)이 계사년에 비로소 본관에 이르러 백성들에게 농사와 누에치기를 권장하여 위엄과 은혜가 아울러 나타났으며, 그 다음해에는 인심이 화열하고 년사 또한 풍등(豊登)하였는지라, 노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취해오고 기와를 구어, 객사(客舍)의 최절(催折) 부패한 부분은 이를 바꾸어서 견고 정치(精緻)하게 하고, 무너지고 떨어져 변별할 수 없는 부분은 이를 도식(塗飾)하여 선명하게 하였으며, 또 학당(學堂)을 증설하여 고을 자제들의 과독(課讀)을 권장하였다' 또 그 다음해에 드디어 부모(父老)들에게 말하기를, '객사가 그 지대가 낮고 제도가 협소하여 여름철을 당하면 찌고 더운 것이 더욱 심하여 빈객(賓客)이나 사신(使臣)이 이르면 그 숨막히고 답답한 정을 발설(發洩)케 할 도리가 없으니, 마땅히 서늘한 누정을 지어 그 마음을 받들어 즐겁게 하고, 그 화기를 인도 발양(發揚)하게 할 것이다. 사실의 화기를 흘러 퍼지는 것이 어찌 우리 현민의 복이 되지 않겠는가.' 하니, 모두 말하기를, '실로 원하는 바입니다.' 하였습니다. 이에 객사 동쪽으로 나아가서 약간 영(若干楹)의 누정을 기공하니, 아전과 백성들이 즐겨 이에 취역하여 달을 넘지 않아서 낙성을 고하게 되었는데, '바라보기만 하여도 날아가는 듯합니다. 청하건대, 이를 이름해 주시고 또 기(記)를 지어 주시어 이 누정을 빛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다. 공이 말하기를, '백성을 위하는 뜻을 취하여 여민(民)이라 이름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유군은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최후의 본지(本志)입니다.' 하였다. 당시 나는 그 객석에 끼어 있었더니, 공이 나에게 그 명명한 의의(意義)를 부연하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그 도면을 상고하여 보건대, 아산의 고을 된 것이 수많은 산봉우리가 교착(交錯) 대치하여 곁으로 둘러싸고, 두 시냇물이 좌우로 둘러 흐르는데, 그 중간이 평야가 길게 뻗어 있고, 수목이 울창하게 들어섰으니, 정말 <이러한 곳에> 누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대개 수령의 직책이란 백성과 친근히 하는 것이다. 인(仁)으로써 위로하고 사랑하며, 의(義)로써 베풀고 다스려서 그 업에 안정하여 근심하고 한탄하는 소리가 없게 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성을 편하게 하는 길은 윗사람의 명령을 공경히 받드는데 있고, 위사람의 명령을 공경히 받드는 자는 마땅히 나라의 법을 준수하고 왕인(王人) 왕명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을 섬기는데 삼갈 따름이다. 최후는 그 급히 할 바를 알고 있는가. 절(節)을 벌려 백성들의 풍속을 관찰하며, 부절(符節)을 나누어 가지고 임금의 덕화(德化)를 널리 퍼는 자가 이 고을에 가서 이 누정에 올라 그 번다한 노고를 잊고 화락하고 광활한 즐거움을 얻음으로서 강박한 정이 사라지고 화평한 기상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는 곧 그 지역을 지키는 자만의 기쁘고 다행한 일이 아니라, 아전과 백성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이 또한 어떠하겠는가. 그렇다면 이 누정의 창건이 어찌 백성을 위하는 생각이 아니리오. 나는 생각하건대 한 여름에 무섭게 뜨거운 해가 한없이 길 때, 산 빛과 물 기운이 아래 위로 잠겨있고, 맑게 개인 경치와 온화한 바람이 궤석( 席) 사이를 서늘하게 해주면, 눈에 희열을 느끼고, 마음에 쾌감을 얻을 것이니, 이를 사방에 고루 베풀어서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번열(煩熱)을 씻고 서로 정신이 통하게 하여 성주(聖主)의 덕화 속에서 고무(鼓舞)하도록 한다면 거의 이 누정을 이름한 뜻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슬프다. 이 정자에 오르고 내리는 자 그 또한 백성을 생각하지 않겠는가. 인하여 유군의 고한 말을 쓰고, 또 최후의 백성을 위하는 심려를 부연하여 그 기를 삼고자 한다. 하였다. 어라정산성(於羅頂山城) : 본현 동쪽 21리 지점에 있다. 석축이며, 주위가 3백 64척에 높이는 10척인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수한산성(水漢山城) : 본현 동쪽 10리 지점에 있다. 석축이며, 주위가 1천 4백 20척에, 높이는 10척인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앵리산성(鶯里山城) : 본현 동쪽 20리 지점에 있다. 석축이며 주위가 6백 55척에 높이는 7척인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신성산성(薪城山城) : 그 산마루에 옛성 두개를 연해서 쌓은 것이 있는데, 그 북쪽 성은 석축으로 주위가 4백 80척에 높이는 10척이며, 안에 우물 하나가 있는데, 날이 가물면 이곳에 비를 빈다. 그 남쪽 성은 토축(土築)으로 주위가 4백 80척에 높이가 4척인데, 옛날에 평택 사람이 난리를 피하여 우거한 사실이 있어 이내 평택성(平澤城)이라 이름했다.

[명환] [고려] 김행도(金行濤) : 태조(太祖)때에 지아주제군사(知牙州諸軍事)가 되었었다.

[본조] 김시주(金時 主)

[우거] [본조] 김구(金鉤) :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이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에 이르렀는데, 사람됨 것이 순후(醇厚)·근각(謹慤)하여 마음이 한결같았고, 경학(經學)에 정밀하고 널리 통하여 성균관에 있으면서 교훈을 게을리 하지 않은 자는 윤상(尹祥) 이후에는 이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시호는 문장(文長)이다.

[제영] 읍거흥장갱수우(邑居興潛更誰尤) : 이승소(李承召)의 시에, "아산(牙山)은 역이 옛부터 이름있는 지역으로, 땅이 기름지고 백성 많아 한쪽 지방에서 으뜸 갔던 곳. 풍속의 후박

(厚薄)을 어찌 깊이 걱정 하며, 시읍의 흥폐를 다시 누구를 원망하라. 한스럽다 공수( 遂)·탁무(卓茂, 모두 한나라 시대의 유명한 지방관)와 같은 어진 태수(太守)없고 노(魯, 공자의 출생국)나라 추(鄒, 명자의 출생국) 나라에 견줄만한 문풍(文風)을 보지 못하겠네. 저 객관수십 영(楹)만이 부질없이 날아들어 뜰구름같이 지나간 일들이 나의 시름 자아낸다."하였다.

### ◎ 비 고

[연혁] 고종 32년에 군으로 고쳤다.

[방면] 현내(縣內) : 끝이 10리. 일동(一東) : 처음은 15리, 끝은 35리. 이동(二東) : 처음은 15리, 끝은 30리, 근남(近南) : 처음은 15리, 끝은 25리, 원남(遠南) : 동남쪽으로 처음은 20리, 끝은 30리, 일서(一西) : 처음은 20리, 끝은 30리, 이서(二西) : 처음은 10리 끝은 15리, 삼서(三西) : 서남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일북(一北) :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이북(二北) : 동북쪽으로 처음은 10리, 끝은 20리, 삼북(三北) : 동북쪽으로 처음은 15리, 끝은 35리

[사원] 현충사(顯忠祠) : 숙종 병술년에 세웠고 정해년에 사액하였다. 이순신(李舜臣) : 자는 여해(汝諧), 본관은 덕수(德水). 선조 무술년에 남해(南海) 노량(露梁)에서 전사하였다. 벼슬은 통제사(統制使) 좌의정(左議政) 덕풍부원군(德豐府院君)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무(忠武). 이완(李莞) : 자는 열보(悅甫) 이순신의 조카인데 인조 정묘년에 의주부윤(義州府尹)으로 순절하였다. 병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강민(剛愍). 이봉상(李鳳祥) : 순신(舜臣)의 5대손으로 청주(淸州)에 보임.

### 3. 신 창 현

동쪽으로는 온양군(溫陽郡) 경계까지 10리요, 북쪽으로는 아산현(牙山縣) 경계까지 14리이며, 서쪽으로는 면천군(沔川郡) 경계까지 26리이며, 남쪽으로는 예산현(禮山縣) 경계까지 21리이고, 서울과의 거리는 2백 53리이다.

[건치연혁] 본래 백제의 굴직현(屈直縣)이었는데 신라 때에 기량(祁梁)으로 고쳐 탕정군(湯井郡)의 속현으로 삼았고, 고려 초기에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으며, 현종(顯宗) 9년에 다시 천안부(天安府)로 이속시켰다. 공양왕(恭讓王) 3년에 본현 서쪽 장포(獐浦)에 성을 쌓고서 당성(城)이라 이름하고 부근 주현(州縣)의 조세(租稅)를 여기에 수납해 두고는 이를 해상(海商)으로 조운(漕運)하여 서울로 수송하였으므로 비로소 만호 겸 감무(萬戶兼監務)를 두었던 것을 본조 태조 원년에 만호는 감생(減省)하고, 태종 14년에 온수(溫水)와 병합하고 읍호를 온창(溫昌)이라 하였다가 16년에 다시 쪼개어 다른 예와 같이 현감으로 하였다.

[관원] 현감과 훈도 : 각 1명

[군명] 굴직(屈直)·기량(祁梁)·온창(溫昌)

[성씨] [본현] 표(表)·맹(孟)·방(方)·조(趙)·노(盧) : 촌에 있다. 이(李) : 역(驛)에 살고 있다.

[산천] 성산(城山) : 본현 서쪽 1리 지점에 있는 진산(鎭山)이다. 금성당산(禁城堂山) : 본현 동남쪽 11리 지점에 있다. 마산(馬山) : 본현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도고산(道高山) : 본현 남쪽 16리 지점에 있다. 또 예산현 산천에도 나와 있다. 정포도(井浦渡) : 본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으니 즉 장포(獐浦)의 하류이다. 또 예산현의 무한천(無限川)이 여기서 합류하여 면천군(沔川郡)의 범근내포(犯斤乃浦)로 들어간다. 장포(獐浦) : 본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그 근원이 도고산에서 나와서 정포도로 흘러들어 간다. 차륜탄(車輪灘) : 본현 동쪽 12리 지점에 있는데 온양군이 가리천(加里川)과 천안군의 포천(浦川)이 이곳에서 합류하여 견포(犬浦)로 흘러 들어간다. 견포(犬浦) : 본현 북쪽 15리 지점에 있으니 즉 차륜탄의 하류이다. 범근내포로 흘러 들어간다.

[토산] 송어(秀魚)·옹어(葦魚)·백어(白魚)·조기(石首魚)·복령(茯 )

[누정] 공북정(拱北亭) : 객관 북쪽에 있다. ○서거정(徐居正)의 기문(記)에, "무송(茂松) 윤상국(尹相國, 윤자운(尹子雲))이 거정(居正)에게 말하기를, '신창 태수(太守) 조침(趙琛) 후가

새 정자를 짓고 공북(控北)이라 편액(篇額)하고는 그 기문을 요구해 왔으니 그대의 말이 있기를 바란다.' 하였다. 내 추억하건대 병자년 여름에 서원(西原)의 공성(公城)으로부터 이른바 신창이란 땅으로 길을 들어 지나는데, 나의 동년(同年)인 태수 김율(金慄)이 길로 나와서 나를 맞아 주었다. 때는 바야흐로 혹열(酷熱)이었는데 잠간 나무 그늘에 앉아 술잔을 나누면서 이내 그 고을의 대략 형편을 물었더니, 김이 말하기를, '이 고을 이 지역이 좁고 백성도 적으며 토질이 박하고 산물이 적은데다가 아전들은 교활·완만하고, 백성 역시 시끄럽고 또 송사를 좋아하는데, 반하여 나는 서리고 얼킨 것을 다스리어 부석(副析) 변별할 만한 재간이 없어, 다만 요동하지 않도록 할 따름이요, 너그럽게 대할 따름이다.' 한다. 나는 말하기를, "옛 사람이 이르기를, '작은 고을을 다스리려면 생선을 삶을 때와 같이 하라.' 하였으니, 군의 고을 다스리는 방법이 거의 그 대체(大體)를 얻은 것이다. 군의 뒤를 이어 오는 자로 하여금 군의 마을을 마음으로 가혹하고, 군의 정사를 그대로 실행한다면, 어찌 다스려지지 않을 이치가 있겠는가."하고, 나의 노정(路程)의 급박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거기서 고별하고 가버렸던 것이다. 그 후 몇 해 만에 다시 호남 지방으로 가는데 또 이길로 지났더니, 태수 윤호(尹壕) 공이 길에 나와서 나를 맞아주고 술잔을 들었는데, 내가 그 고을 다스리는 법을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나의 동년 김군과 같았다. 또 나의 갈길이 바쁘고 역방(歷訪)할 겨를을 얻지 못하여, 마음속으로 그윽히 괴이하게 여기기를, 거정이 이 읍과는 본래의 인연이 없어 그런 것인가 했다. 그런데 지난번에 들으니, 조후(趙候)가 고을을 다스리는데 부지런하고도 민첩하며, 간소하게 하면서 요령이 있어 그 명령을 번다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업(業)에 충실하고, 백성들에게 빨리 하지 말라 하여도 그들은 즐겨 그 일에 달려와서 관청과 정자가 환연(煥然)하게 일신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정사를 사모하나, 친히 그 읍의 상황을 보지 못하였은즉, 김동년(金同年)·윤사문(尹斯文, 윤호)과 더불어 일찌기 서로 토론한 말들이 나의 흥중을 왕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조후가 정자를 짓고 무송 윤공의 기문의 부탁이 홀로 나에게 지워지니, 이는 전일 나에게 두 차례에 걸친 기망(期望)이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감히 즐겨 말하지 않으리요. 나는 생각하기를, 누대나 정자를 세우는 것이란 완상(玩賞)하며 놀기를 일삼으려는 것이 아니요, 곧 왕명을 받들고 온 이를 존경하고 빈객을 잘 접대하며, 울적한 것을 이끌어 풀어버리기 위한 것인데, '공북(北)'이라 이름한다면 다만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조망(眺望)해 내다보고, 여기서 술마시며 글 읊는 사람들로 하여금 멀리 궁궐문을 바라보고, 하늘 아래의 장안(長安, 서울)을 가리키며, 일찌기 한 그릇의 밥이라 할지라도 임금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한다면, 춘추(春秋)의 왕실(王室)을 존중한 큰 의리를 깊이 얻는 것이 될 것이다. 대개 춘추는 선(善)을 높이 선양해 권장하고, 악(惡)을 깎아내려 징계한 책으로, 왕실을 존중한 자 있으면 이를 썼고, 백성의 일을 소중히 한 자 있으면 이를 썼던 것이다. 조후의 이번 일은 공역에 있어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으며, 시세(時勢)로 보아서도 과잉한 거조가 아니었고, 왕실을 존중함이 이와 같으니, 춘추의 전례에 있어서도 오히려 대서특서(大書特書)하여 이를 찬미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요, 나같은 사람은 사국(史局)의 문한(文翰)의 직임을 맡고 있는 터이니, 비록 쓰려고 하지 않은들 어찌 면하겠는가. 그 산천과 읍터의 형승(形勝)에 있어서는 내 일찌기 한 번도 목격한 일이 없으니, 어찌 장황하게 늘어놓으랴. 나의 박전(薄田) 1경(頃, 백마지기)이 평택(平澤)땅에 있는데, 다른 날 혹은 퇴를 원하여 그 곳에 돌아가서 휴양한다면, 마땅히 한 번 그 정자 위에 가서 보고 그 말을 다하겠노라.

[학교] 향교 : 본현 북쪽 2리 지점에 있다.

[역원] 창덕역(昌德驛) : 본현 동쪽 3리 지점에 있다. 명암원(鳴巖院) : 본현 동쪽 11리 지점에 있다. 마장원(馬場院) : 본현 동쪽 15리 지점에 있다. 용정원(龍頂院) : 본현 남쪽 15리 지점에 있다. 신례원(新禮院) : 본현 서쪽 20리 지점에 있다.

[교량] 미륵탄교(彌勒灘橋) : 마장원 동쪽에 있다.

[불우] 한량사(閑良寺)·천일암(千日庵)·도명사(道明寺)·원암(元庵)·석천사(石泉寺)·불암(佛庵)·안심사(安心寺) : 모두 도고산에 있다.

[사묘] 사직단 : 본현 서쪽에 있다. 문묘 : 향교에 있다. 성황사 : 본현 서쪽 2리 지점에 있다. 여단 : 본현 북쪽에 있다.

[고적] 성산성(城山城) : 석축으로 둘레가 1천 2백 13척에 높이는 15척이며, 그 안에 두개의 우물이 있는데 지금은 폐해 버렸다.

[인물] [본조] 맹희도(孟希道) : 고려 공민왕(恭愍王)때에 과거에 급제하였는데, 본조에 들

어와서 벼슬이 검교한성윤(檢校漢城尹)에 이르렀고, 우의정(右議政)에 증직되었다. 맹사성(孟思誠) : 희도(希道)의 아들인데, 고려 신우(辛禔) 때에 과거에 장원하고, 우리 세종 13년에 우의정에 임명되었는데, 평생에 재물과 전택(田宅)을 일삼지 않고, 청백으로 한결같이 절조를 지켰다.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조영규(趙英珪) : 태조의 개국공신(開國功臣)이며, 벼슬이 전서(典書)에 이르렀다.

[신증] 표연말(表沿沫) : 과거에 올라 벼슬이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이르렀는데, 무오사화(戊午史禍)에 걸려 멀리 귀양가던 도중에 죽었다. 아들 빙(憑)도 우수한 성적으로 과거에 올라, 벼슬이 홍문관 직제학(弘文館直提學)에 이르렀는데, 부자가 모두 문명(文名)이 있었다.

#### ◎ 비 고

[방면] 현내(縣內) : 끝이 5리이다. 대동(大東) : 처음이 5리, 끝이 10리이다. 소동(小東) : 처음이 5리, 끝이 8리이다. 대서(大西) :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소서(小西) : 처음이 10리, 끝이 15리이다. 북면(北]面) : 처음이 5리, 끝이 13리이다. 남면(南面) : 처음이 5리, 끝이 15리이다.

[성지] 당성(城) : 장포(獐浦)에 있는데, 이웃 현의 조세(租稅)를 받아 배로 서울로 실어온다.

[교량] 곡교(曲橋) : 미륵천(彌勒川)에 있는데 가물면 다리를 놓고, 물이 불면 배로 건너는데 내포 10여 읍에서 서울로 통하는 대로이다.

[토산] 감·도미(鰕魚)·게·황석어(黃石魚)·세미어(細眉魚)